

사순 시기 묵상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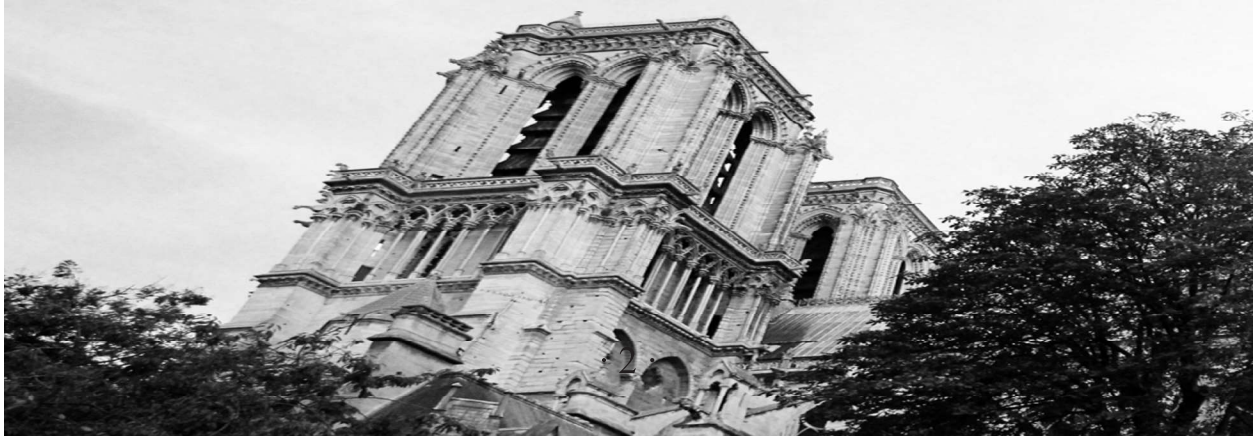
2018 돌아오너라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사순 시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과 성사와 우리 이웃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가운데 말씀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듣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는 힘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이라는 선물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선물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선물을 새롭게 찾고,
우리를 눈멀게 하는 죄에서 정화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한 삶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짜임

여는 글 ···02

묵상시1 ···06

복음 묵상 ···08

묵상시2 ···26

복음 묵상 ···28

묵상시3 ···49

복음 묵상 ···50

사순 시기 묵상집은 후원과 기도로 동참하는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엮었습니다.
이 묵상집이 여러분 곁에 있고 매일 읽혀져,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길라잡이는 대전교구의 김성현 신부님(몽골 선교)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사순 시기 묵상집

2018

돌아서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생각할 시간을 가지어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어라.

웃는 시간을 가지어라.

그것은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놀 시간을 가지어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지어라.

남에게 주는 시간을 가지어라.

그것은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이기적이 되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독서할 시간을 가지어라.

다정하게 될 시간을 가지어라.

일할 시간을 가지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성공의 대가이다.

자선할 시간을 가지어라.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2월 14일

재의 수요일

요엘 2,12-18 2코린 5,20—6,2 마태 6,1-6.16-18.

말씀 길라잡이

"나에게 돌아오너라"(요엘 2,12)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더 윤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은 저에게 삶의 많은 자잘한 규칙을 알려주곤 합니다. 주전자의 주둥이를 문 쪽으로 향하게 두면 안 된다, 씻은 그릇의 물기를 없애느라 많이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게르의 두 기둥 사이로 지나가면 안 된다 등등…. 이 규칙들의 저변에는 모든 규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달아난다!'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우리의 모든 묵상에도 그 저변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로 회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수난의 길, 부활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하나되는 여정을 출발합시다.

제3의 눈과 회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주어졌는데, 각자 서로 의존되어 작용한다. 제1의 눈은 육신의 눈(시각 또는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상대하는 감각적 눈이다. 제2의 눈은 이성의 눈(묵상 또는 성찰)으로 상상, 직관을 통해 보이는 것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3의 눈은 단순한 봄에서 나아가 설명하고 '맛보기'로 더 나아가는 참된 깨달음의 눈(관상)이다. 이렇게 제3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우리는 '신비가'라 부르는데 단순한 믿음 체계 또는 소속 체계에서 실재하는 내적 체험으로 옮겨간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옮겨감을 '회심', '깨달음' 또는 '변화'라고 부른다.

- 리처드 로어, 『벌거벗은 지금』



회심은 새로운 각오로 하느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신뢰와 같다.
/ 로제 수사

성체 조배를 하며 하느님의 이끄심을 청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15일

재의 예식 다음 목요일

신명 30,15-20 루카 9,22-25.

말씀 길라잡이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루카 9,22)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신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고난의 길은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신명 30,19-20).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고난은 구원의 성사가 됩니다. 고난과 불편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우리 내면의 욕망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외면할 수 없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무난한 길, 크게 무리 없는 길을 선호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종류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과
십자가를 성큼 안고 가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안고 가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 송봉모, 『광야에 선 인간』



십자가는 하느님의 열정적 사랑과 영광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표징이다.
/ 카를로 M. 마르티니

소원했던 가족, 친지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16일

설

민수 6,22-27 야고 4,13-15 루카 12,35-40.

말씀 길라잡이

'종들에게 시중을 드는 주인의 마음'(루카 12,37 참조)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며 얼마나 대견하면 주인이 오히려 시중을 들게 되었을까요? 고3 수험생 곁에서 간식으로 과일과 음료를 준비하며 극진히 시중을 드는 어머니들이 떠오릅니다. 대신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자녀를 보며 너무도 사랑스럽고 대견해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오늘 복음의 주인을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게 저 역시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청소하고, 칠판을 정리하고, 사탕 그릇을 아침마다 채워 놓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복사할 것이 있다면 해 주고, 코팅도 해 주고…. 그렇게 주고 또 주려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의 봉사가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설을 맞이하여 여러 선교사들과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새해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맞이하게 될 사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가득한 주님의 시중을 받는 깨어 있는 행복한 종이 되시길 빕니다.

콜카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강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젊은 사람들이 인도 콜카타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했습니다.

"인도의 콜카타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콜카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 김용해



자기에게 깨어 있지 않으면 타인에게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느님께도 깨어 있을 수 없다. 현존이란 현재에 존재함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현존하느냐가 곧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다. / 리처드 로어

독거노인을 방문해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실천 한가지

2월 17일

재의 예식 다음 토요일

이사 58,9ㄷ-14 루카 5,27ㄴ-32.

말씀 길라잡이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루카 5,27-28)

세관에 앉아 있던 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레위의 응답은 거침없이 일어납니다. 늘 하던 일을 하고 있던 세리 레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흡사 최면에라도 걸린 듯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일어날 리 만무합니다. "나를 따라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레위의 가슴속 무엇인가가 뻥 뚫리는 체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순간은 좀 엉뚱했습니다. 고3 2학기가 되도록 저는 제 꿈을 아무에게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품어 왔으나 무엇인가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본당 신부님이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은행나무 아래에서 신부님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너 신학교 갈 생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역시 답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은 예정된 성소 국장 신부님과의 면담 일정만을 다짜고짜 알려 주시고 저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절차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신부님의 목소리가 그날 제 가슴을 뻥 뚫어 놓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 다른 형태로 제 자리에서 소일하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는, 속이 시원해지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

화가 홀먼 헌트는 시골집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그리스도를 화폭에 담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을 불러 잘못된 곳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던 친구들은 감탄사만 연발할 뿐 잘못된 곳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헌트는 기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윽고 젊은 화가가 다가왔다. "헌트 선생님, 제가 보기엔 그림에 초보적 실수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문에 손잡이와 자물쇠 그리는 것 깜박하신 것 같습니다".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께서 자네 집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네".

- 쿼트 지, 『느낌이 있는 이야기』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망설임 없는 순명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절로 순명하게 된다. / 베네딕토 성인

새터민의 아픔을 기억하며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18일

사순 제1주일

창세 9,8-15 1베드 3,18-22 마르 1,12-15.

말씀 길라잡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마르 1,13 참조)

부제 시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운데 저는 유대 광야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죽기 전에 이런 곳에서 얼마 동안이라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철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유대 광야와 많이 닮은 곳, 이곳 몽골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느님만을 추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곳이 아닐까요? 우리에게서 하느님을 가리는 것들이 최대한 사라진 광야이기에, 사탄 역시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몸을 숨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에게는 왜 아직 사탄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탄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와 하느님 사이에 많은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굳이 사탄이 나서지 않아도 제 자신이 저를 유혹하고, 세상의 기쁨들이 제정신을 흐려 놓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다 해도 마음은 도시를 헤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탄을 직접 대면하기가 겁나니까, 조무래기들이랑 씨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겉돌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광야에 살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제 마음까지도 광야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메타노이아

예수의 첫째 말씀(마르 1,15)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바로 '네 마음을 바꿔라.'이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전적이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에 취하게 된'사랑 안의 존재로 살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이루어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리처드 로어, 『벌거벗은 지금』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 그것이 회심이다. / 버나드 로너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선물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19일

사순 제1주간 월요일

레위 19,1-2.11-18 마태 25,31-46.

말씀 길라잡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처 당신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핑계를 삼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당신을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마태 25,40)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성녀는 길거리에서 죽어 가는 이들 속에서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환자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타 사회 복지사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구체적인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들이 나와 주님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귀한 존재들임을 일깨우고 또 일깨웁니다.

책임감 냄새

미국의 한 예수회 주임 신부가 성당을 노숙인들의 잠자리로 제공하자 신자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미사 전 성당을 환기시키지만 항상 남아 있는 냄새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임 신부는 미사 강론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성당에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라는 말로 신부는 강론을 시작했다.
신자들은 신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때 누군가가 대답했다. "발 고린내가 나요".
"좋아요. 그런데 왜 발 고린내가 날까요?"
"어젯밤에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잤으니까요". 한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내버려 둘까요?"
"그거야 우리에게 그럴 책임이 있으니까요". 다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 이제는 성당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한 남자가 일어서서 말했다.
"책임감 냄새가 납니다".

–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 웬델 베리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센터를 방문하여 1일 봉사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0일

사순 제1주간 화요일

이사 55,10-11 마태 6,7-15.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마태 6,9)

한 달 반가량 함께 지냈던 '엘라'라는 이름의 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엘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데리고 갈 때 저를 등에 태워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애완견을 산책시키듯이 엘라를 우물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라는 가는 도중에도 틈만 나면 고개를 땅에 대고 풀을 뜯었습니다. 고집 센 엘라 때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엘라가 풀을 뜯는 것을 넋 놓고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이 풀을 뜯는데 일념을 다하듯이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밤에도 낮에도 틈만 나면 풀을 뜯는 녀석처럼 말이다!' 풀을 뜯는 엘라의 집념과 본능 앞에서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원에 나와서 지내다 보니 성무일도를 바치는 시간이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확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숨 쉬는 듯, 당연한 듯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콩라 드 메스테르의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엘라의 집념만큼이나 끈질기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기도하는 이들은
마치 자기 영혼의 바다에다
늘 새로운 생명의 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서
몸이 정돈되고 생기가 넘친다.
그러한 사람들은 삶이 긴장되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잘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

- 송봉모, 『생명을 돌보는 인간』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다. / 리처드 로어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1일

사순 제1주간 수요일

요나 3,1-10 루카 11,29-32.

말씀 길라잡이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루카 11,30)

선교사 또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표징이 되어야 하는가를 묵상합니다. 과연 회개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면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사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명을 마치고도 요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선교사의 속마음이 요나보다 더 평화롭지 못하고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 자체는 니네베 도심 한복판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이 세대 사람들이 정면으로나 옆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표징이 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하여도 갈 길이 먼데, 우선은 좋은 표징이 되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니네베'를 공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선교사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회개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강한 손길로 함께 하여 주소서'.

모서리 양심

"물론이에요. 난 내 양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세 개의 모서리를 지니고 여기에 들어 있는 작은 물건이 양심이지요". 그는 가슴에다 손을 얹었다. "내가 착할 때 양심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은 빙글빙글 돌아 모서리가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 모서리가 다 닳아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 무기와 노동자, 『느낌이 있는 이야기』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 레프 톨스토이

실천 한가지

성당에 30분 일찍 가서 침묵 가운데 양심을 성찰합니다.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1베드 5,1-4 마태 16,13-19.

말씀 길라잡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건네 오십니다. 우리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응답, 곧 우리 자신의 고백만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옛날에 드렸던 답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 있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오늘 당신의 일을, 우리가 드린 응답을 주춧돌 삼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작년에 저는 '예수'라는 이름의 몽골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도 목수인데, 자신이 머리를 길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닮았다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십여 년 전에는 '후니 후(사람의 아들)'라는 몽골 어린이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이의 본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와서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 해도 거짓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처럼 별명으로 불릴 만 한 가벼움이나 우연의 일치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하며 확신에 찬 응답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두운 밤을 치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걸어가는 도중에 넘어졌다면
즉시 일어나 다시 걷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을 치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청해야 한다.

- 송봉모,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운명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요하지 않고 운명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이다.
/ E. 가이벨

오늘 하루 도움이 필요한 직장 동료의 수호천사가 되어 줍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3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

에제 18,21-28 마태 5,20ㄴ-26.

말씀 길라잡이

"형제와 화해하여라"(마태 5,24)

조용히 앉아서 화해해야 할 형제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앉아 있으니 우선 화해해야 할 상대가 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게으르고 기대했던 것보다 항구하지 못하며, 스스로 그려 놓은 그림을 그럴듯하게 채워 가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이 아닌 쩨쩨하며 쉽게 성을 내는 모습이 영 못마땅합니다. 제 자신을 제일 많이 실망시키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마땅치 않아도 그저 숙명처럼 짊어지고 가야지 하는 정도로는 화해가 아니겠지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의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게 안 되니 거꾸로 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밑천 삼아 용기 내어 자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 자신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아까보다는 눈이 맑아졌나 봅니다. 제가 화해해야 될 형제들이 보입니다!

코이의 법칙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 두면 5~8㎝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 두면 15~25㎝까지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120㎝까지 성장한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기르면 큰 물고기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이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영혼을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애심과 이기심이라는 작은 어항에 가두면 우리 영혼은 거의 성장을 못하는 피라미가 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강물에 놓아 그 강물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큰 물고기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대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다. 그러나 영혼의 성장 가능성은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 안에 스스로를 가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안목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폭을 보편적인 '가톨릭'의 경지까지 넓히십시오.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데 닭장의 암탉처럼 푸드덕거려선 안됩니다.
/ 호세마리아 에스끄리바

실천 한가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한 끼 단식합니다.

2월 24일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신명 26,16-19 마태 5,43-48.

말씀 길라잡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저는 제 집에 올 때마다 무엇을 가져갈까 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그를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꾸만 돈을 빌리러 오는 그 친구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이곳 초원에서 아예 현금 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어쩌나! 그렇게 되면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친구가 되는 것에서부터 선교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내 꿈은 어떻게 되는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판단을 어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련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하실 리가 없지요. 어쩌면 '완전해진다.'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무엇인가 달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일에 정확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명분과 효과를 누리며 더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예방하는, 문제라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그려보니 머리가 벌써 지끈거립니다. 규칙을 만들어 규칙과 명분의 힘으로 마음 고생을 덜하면서 쉽게 당면한 사안들을 처리해 나가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데, 사실 그것은 큰 유혹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결코 편안하게 평정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결국 그를 위한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는 고민하는 사람으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바로 주님처럼!

순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은 어떤 잘못이나 상처가 없는 마음이 아니다.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확실히 믿는 마음이다. 순결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술책'이나 계산에 기대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느님 안에서, 오직 그분에게 모든 것을 희망한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우리는 하느님께 희망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 십자가의 요한 성인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창세 22,1-2.9ㄱ.10-13.15-18 로마 8,31ㄴ-34 마르 9,2-10.

말씀 길라잡이

"예, 여기 있습니다"(창세 22,1)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바치려고 합니다.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날 이사악은 아버지가 평소와 다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는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창세 22,11). 정신 나간 듯 보였던 아버지가 다시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증명되는 순간이었고 이사악은 아버지의 응석받이로서 누리던 평범한 체험이 깨어져 나가는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대신 아버지의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뵈었던 날, 베드로와 제자들도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부활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을 뵙고 겁에 질렸던 제자들은 그분의 처참한 수난과 죽음을 보고 더욱 경악하지만, 부활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사악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아버지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에 눈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밖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하나되고,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험해야 하며, 또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 아돌포 케사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결심이고 결단이고 약속이다. / 에리히 프롬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6일

사순 제2주간 월요일

다니 9,4ㄴ-10 루카 6,36-38.

말씀 길라잡이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루카 6,37)

어떤 수도자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는 기쁨에 겨워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도 심판받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 조바심하며 애써 온 나날이었기에 그 순간은 이제 다 이루었음에서 오는 안도감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침 하나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환희의 경지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천진무구한 어린이의 눈빛, 마주 보면 빠져들 것만 같은 호수 같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는 시선, 그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당당해지게 해 주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와 세리 마태오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용서하여 주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내 삶의 시간이 다 찼을 때 기쁨에 들뜰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갑시다.

용서

용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삶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당신은 고통 속에 갇혀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사실과 상처 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얽어매는 반응과 편견과 억측의 사슬에서 풀려나 현재에 열려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에게 저당 잡힌 사람의 영혼 일부를 되돌려 주게 됩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또한 자신의 영혼을 되찾게 됩니다.

- 아돌포 케사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용서는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의 나무이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 먹도록 초대됨을 의미한다. / 티모시 래드클리프

실천 한가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자신을 위해 미사 1대를 봉헌합니다.

2월 27일

사순 제2주간 화요일

이사 1,10.16-20 마태 23,1-12.

말씀 길라잡이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이사 1,18)

몽골에 파견되어 온 초창기에는 겨울이 시작되는가 싶으면 한숨이 저절로 나곤 했습니다. '또 긴 겨울이구나!' 그랬던 제가 몽골 겨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공소로 가던 길에 온 세상이 하얀 눈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 아름답다!"는 탄성과 함께 차에서 내려 햇살이 반짝이는 눈밭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그러자 이 일 저 일로 심란했던 제 마음이 눈 덮인 하얀 들판 위에 그대로 흩어져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광경은 '시리도록 차갑고 깨끗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겨울 문턱에 서면 '이제 곧 그 들판에 다시 드러누울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설렘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짙게 번져 있는 우리 삶의 빛깔이 마치 하얀 칠판에 잘못 그어진 낙서 같은 것이라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지는 은총의 시간! 혼자 지우기에 벅차 옆을 보니 주님께서 함께 지워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반가움과 감사한 마음이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햇살에 눈부셨던 흰 눈의 결정체들처럼!

자기 수용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자기 수용이다.

– 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미움 받을 용기1』



신이여, 바라옵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 라인홀드 니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실천 한가지

2월 28일

사순 제2주간 수요일

예레 18,18-20 마태 20,17-28.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마태 20,22)

제베대오의 두 아들은 주님의 이 물음에 "할 수 있습니다."(마태 20,22)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물어 오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는 이 물음에 그들처럼 쉽게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시려는 잔의 의미를 그들보다는 좀 더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합니다. '주님께서 드신 잔을 오늘 나는 마시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기를 감수하고 있는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실상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기 싫으며 누구에게도 결점 잡히지 않은 채 명예롭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니 정말 그분의 잔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을 드립니다. "예, 할 수 있으려니 여기면서 여기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응답은 아니지만 저의 부족한 삶이 간절한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의 모범으로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지향하는 '치셤' 신부는 중국 오지에 파견되어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 중국에서 사목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려는 치셤 신부에게 평소 우호적이지 않던 마을 재력가 '챠'씨가 찾아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신부님,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어느 종교에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당신 종교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 자식이 신부님 덕분에 죽기 직전의 병을 고쳤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고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신부님의 그 진실된 생활이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 내는 인내와 용기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종교의 좋고 그름은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부님, 당신은 결국 당신의 모범으로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 A.J.크로닌, 『천국의 열쇠』



우리가 할 일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거나 예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이다. / 마더 테레사 성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

예레 17,5-10 루카 16,19-31.

말씀 길라잡이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루카 16,25)

부자가 살아생전에 손에 쥐고 즐겼던 복락, 그 '좋은 것들'이 결코 라자로가 받았던 그 '나쁜 것들'보다 정말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육신적인 가난을 벗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현실적입니다. 그 희망과 위안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예레 17,5 참조) 합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라자로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복음의 진짜 주인공인 그 '어떤 부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이 그 부족함의 정체입니다. 그의 불행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라자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라자로들도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지금 라자로와 같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한번 절제를 잃고 터져 나오면 무엇이든지 무너뜨리고 어지럽힐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려 때 스님 지눌은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디디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인격의 실현에 방해된다 하여 욕심을 버릴 것이 아니라, 욕심을 통해 인격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땅에서 넘어졌으면 땅을 제대로 골라 디뎌야 하고, 말에서 떨어졌으면 말고삐를 잘 쥐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순 시기는 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주의를 기울이는 시기이다.

- 금장태, 『나를 찾고 너를 만나』



우리는 자신이 갈망하는 형상을 닮아 간다. / 토마스 머튼

평일 미사에 참석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일

사순 제2주간 금요일

창세 37,3-4.12-13ㄷ.17ㄹ-28 마태 21,33-43.45-46.

말씀 길라잡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마태 21,42)

형들을 찾으러 갔던 요셉이 그만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창세 45,8).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 과연 그렇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에서 소작인들에게 보낸 종들이 갈 때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알아보겠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그 아들마저 포도밭 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그러나 주님은 하늘나라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마태 21,42).

선교사의 일이 실패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꼭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정말 버려졌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욱 놀랍게 드러날 기회임을 우리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악을 없애는 것은 그에 맞서는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선입니다. 선한 사랑만이 악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아 내는 바보들, 상처를 입고서도 기꺼이 용서해 주는 바보들, 이런 바보들이 이 세상을 밝히며 저세상을 향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바보가 아니셨습니까?

–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악은 쾌락 속에서도 고통을 주지만 덕은 고통 속에서도 위안을 준다.
/ C.C.콜튼

고요한 곳에서 1일 피정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3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

미카 7,14-15.18-20 루카 15,1-3.11ㄴ-32.

말씀 길라잡이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루카 15,32)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에 자신을 대입하여 묵상하곤 합니다. 형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동생 같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자주 펼쳐집니다. 거의 매일이지요. 형이나 동생의 체험은 저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곧 개인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직분으로서 주어지는 공적인 면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비로우심을 한없이 온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선교사도 그렇게 아버지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개인 피정의 시간을 통해 회개와 성숙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의 회개와 영적 성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삶은 오늘 하느님께서 선교사에게 보내신 누군가가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 그 지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애환이 발견됩니다. 선교사는 다양한 모습의 아우들과 형들을 만납니다. 제한도 해 보고, 호통도 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다짐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끝자리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뼈를 없애듯이

한 무신론자가 식당차에서 성직자 곁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려는 속셈으로 말문을 열었다.
"선생은 성직자시군요?" "그렇소".
"그렇다면 성경을 주제로 설교를 하시겠군요?" "그렇소".
"내가 보기에 선생은 이해하지 못할 대목을 성경에서 무척 많이 발견하실 것 같은데요?"
"몇몇 대목은 그렇소".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대목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 불고기 요리에서 뼈를 없애듯이 처리하지요. 난 뼈가 나오면 한쪽으로 치워 놓고 살코기를 먹는답니다. 몇몇 바보들이나 고집스럽게 뼈를 삼켜 캑캑거리지요".

- 타르벨의 교사 길잡이, 『느낌이 있는 이야기』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다가가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 마르틴 부버

'비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침묵

토머스 머튼

마음이 상했지만 답변하지 않을 때
내 마음, 내 명예에 대한 방어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길 때
침묵은 '양선함'입니다.

형제들의 탓을 드러내지 않을 때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용서할 때
판단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용서해 줄 때
침묵은 '자비'입니다.

불평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인간의 위로를 찾지 않을 때
서두르지 않고
씨가 천천히 싹트는 것을 기다릴 때
침묵은 '인내'입니다.

형제들이 유명해지도록 입을 다물고
하느님 능력의 선물이 감춰졌을 때도
내 행동이 나쁘게 평가되더라도
타인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내버려 둘 때
침묵은 '겸손'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침묵할 때
주님의 현존이 있기 위해
세상 소리와 소음을 피할 때
침묵은 '신앙'입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십자가를 포옹할 때
그 침묵은 '흠숭'입니다.



3월 4일

사순 제3주일

탈출 20,1-17 또는 20,1-3.7-8.12-17 1코린 1,22-25 요한 2,13-25.

말씀 길라잡이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1코린 1,22)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1,23). 사람들이 찾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거슬러서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요청과는 너무도 다르기에 걸림돌이 되고 바보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뻔할지라도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요청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번갈아 바라보며 무엇을 선포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빅토리호의 기적' 마리너스 수사

래너드 라루 선장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항에서 7600t급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에 1만 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 목숨을 구한 인물이다. 그는 이 항해 후 선장을 그만두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성 베네딕도회 뉴튼 수도원에 입회했다. 수도명은 마리너스였다.

그는 2001년 10월 14일, 87세로 선종할 때까지 47년간 단 한 번도 수도원 밖을 나가지 않고 수도 생활을 했다. 라루 선장은 흥남 철수 작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지거나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또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해 성탄절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이 내게 와 있었다".

16시간의 긴 탑승 끝에 14,000명을 태워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한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한겨울 동해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3일 동안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해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 이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배에 탑승했던 임산부들로부터 5명의 아기가 태어나 14,005명의 피난민이 내렸는데 이 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도 타고 있었다.

– 가톨릭평화신문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 마르틴 하이데거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실천 한 가지

3월 5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

2열왕 5,1-15ㄷ 루카 4,24ㄴ-30.

말씀 길라잡이

"어린 소녀 하나"(2열왕 5,2)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느님을 체험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녀는 선교사입니다. 소녀는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국땅에서 종이 된 소녀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서도 여주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고, 여주인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나아만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기준에서 볼 때 자신을 맞이한 사람은 너무 비천한 심부름꾼이었고 그가 가져온 처방의 내용은 너무 성의가 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생각하였다."(2열왕 5,11). 나아만의 생각은 그가 지닌 상식이자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지만 그 선입견이 제일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몽골의 형제자매들도 처음에 쉽게 받아들였던 복음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기존 삶의 이해 방식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부하가 했던 것처럼 저도 훌륭한 조언을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몽골의 여린 신앙의 새싹이 그 난관을 잘 헤치고 자라나길 응원합니다.

특별한 날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특별한 날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은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부인이 뉴욕을 여행하던 가운데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 못한 채 특별한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친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네가 살아 있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야".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유익한 일들로 채워 가라. 그것이 행복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예수님의 수난을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함으로써 시간을 성화시키는 삶을 삽니다. 실천 한가지

3월 6일

사순 제3주간 화요일

다니 3,25.34-43 마태 18,21-35.

말씀 길라잡이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마태 18,21)

몽골에는 동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해산물이나 과일과 관련된 단어는 열악합니다. 눈치챘겠지만 바다가 없고 과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체험하는 만큼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원에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 학원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재는 성경입니다. 오늘 교재를 펴자 '용서'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단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용서받아보고 용서해 보는 체험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한 만큼 우리의 영적 어휘력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용서를 체험하였지만 그의 다음 행동을 보면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늘 나라에 데려다 놓는다 해도 이방인으로 남을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용서'라는 하늘 나라의 언어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이해할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참견은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참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참견과 나쁜 참견, 이렇게 말입니다. 나쁜 참견은, 말하자면 '굳이 필요 없는 참견'입니다. 반면에 좋은 참견은 우스개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참견'이라고요. 나쁜 참견은 자기 기분대로 상대를 대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데에 반해, 위대한 참견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때 위대한 참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과 충고라도 자신의 기분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정말 필요한 관심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말은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 히노 오키오, 『위대한 참견』



지치지 않는 열정, 따뜻한 가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손길을 가져라.
/ 찰스 디킨스

상대에 대한 판단이 들고 충고하고 싶을 때 말없이 침묵하며 화살기도를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7일

사순 제3주간 수요일

신명 4,1.5-9 마태 5,17-19.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신명 4,6)

초원에서 지내면서 말 한 마리를 매어 놓기 위해 쇠막대를 무심코 박았습니다. 그때 몽골 친구가 그것을 보더니 그곳에 박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나 자세히 보니 전에 누군가의 게르가 있었던 자리인 것입니다.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 자리는 존중되었습니다.

한 여름을 지냈을 뿐이지만, 유목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실감합니다. 마치 이웃 사이의 관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집에 누군가 다녀가면 다음 날 누구냐고 묻습니다. 서로의 떠난 자리까지 존중하는 마음, 이웃 유목민의 삶을 지켜 주는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 실천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 주는 법을 말입니다.

가진 바를 나눈 참교육자, 김익진 프란치스코

전쟁이 끝난 직후라 너나없이 먹고살기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도둑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 허름한 김익진의 집에도 밤손님이 들었다. 잠자다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다. 검은 그림자가 반닫이를 열고 옷가지를 꺼내고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검은 몸통을 잡고 굴렀다. 도둑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불을 켜고 보니 이제 막 솜털이 나기 시작한 십 대 소년이었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소년에게 그는 교사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일렀다.

"몹시 힘들다는 걸 안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쳐서야 되겠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내일부터 무조건 책을 읽어라. 네 힘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게다".

그는 다음 날 소년에게 임시 일자리를 구해 줬다. 소년 자신도 하느님의 귀한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길 바라며….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 소년은 듬직한 청년이 되어 찾아왔다. 큰절을 한 뒤 말문을 열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 경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도둑으로 한평생 지낼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은 방바닥에 엎드려 한없이 흐느꼈다.

– 김문태, 『불꽃이 향기가 되어』



우리가 단정하는 두 눈을 감고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눈을 뜰 때마다 놀라운 상호 관계의 장을 만들어 낼 기회가 생긴다. / 그레고리 보일

오늘 하루 3번 이상의 칭찬을 하도록 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8일

사순 제3주간 목요일

예레 7,23-28 루카 11,14-23.

말씀 길라잡이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루카 11,20)

아이들과 함께 본당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성호경을 긋는데 그 마지막 동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를 날렵하게 그린 후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는 쪽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남미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 뛰어 들어가며 하는 동작을 보고 배운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떤 신부님의 성호경 긋는 모습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요하고 절제된 움직임은 그 자체로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듯해서 하느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성호경을 그을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좋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하느님 나라를 우리 곁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성 어린 십자 성호 긋기는 어떨까요? 우리 손짓으로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연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기쁨 선언서

나는 내 삶이 기쁨이라고 느낀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찾는다.
우주와 하나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나는
즐거움과 선함, 아름다움과 끊임없는 기쁨으로 용감하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
순간순간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내가 알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보낸다.
나는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향상되었고 보호받으며 전적으로 사랑받음을 느낀다.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 집회서

영적 성장을 위해 사순 시기 특강에 1회 참석합니다. 실천 한 가지

3월 9일

사순 제3주간 금요일

호세 14,2-10 마르 12,28ㄱㄷ-34.

말씀 길라잡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호세 14,6)

하느님의 사랑이 이슬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이 말씀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져 옵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듯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를 위해 이슬이 되어 주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슬을 무척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풀잎 끝에 맺혀 있을 이슬 한 방울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실 안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그 이슬과 닮았습니다. 누가 찾아오던 찾아오지 않던, 누가 바라봐 주든 그렇지 않든 늘 그 자리에 고요히 계시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슬처럼 반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미미한 존재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최고의 단식

이번 사순 시기에 단식을 하려 하나요?
모두가 이런 단식을 실천한다면, 평화와 신뢰와 기쁨의 삶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 공격적인 말을 자제하고 고상한 말을 전달하세요.
- 불만을 자제하고 감사로 가득 채우세요.
- 분노를 자제하고 온유함과 인내를 가득 채우세요.
- 비관주의를 자제하고 희망과 낙관주의로 가득 채우세요.
- 걱정을 자제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득 채우세요.
- 불평을 자제하고 삶의 단순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 압박감을 자제하고 기도로 가득 채우세요.
- 슬픔과 괴로움을 자제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세요.
- 이기주의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채우세요.
- 용서 부족을 자제하고 화해의 태도로 가득 채우세요.
- 말을 자제하고 침묵과 다른 이들의 경청으로 가득 채우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



몸으로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느님을 깨닫는다. / 조셉 주베르

오후 3시에 마태오 복음서 27장(수난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0일

사순 제3주간 토요일

호세 6,1-6 루카 18,9-14.

말씀 길라잡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루카 18,10)

선교사로서 가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성당 안이 아이들로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미사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마음을 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힘겹게 던지는 말, "너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성당에 나오는 것만도 감지덕지한데, 와서도 제대로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호세 6,3).

이곳 몽골 친구들이 성당에 와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체험은 그들 평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에게는 출석 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교만한 바리사이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

경제부 기자가 시중 은행의 위폐 감별사를 만나 물었다.

"요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럴수록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를 볼 때 뭔가 감이 오는 게 있나요?"

"네, 일단 너무 화려하면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위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서 어딘지 부자연스럽습니다.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 이기주, 『언어의 온도』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위대한 행위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 미우라 아야코

환경 보호를 위해 각종 세제 사용을 자제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1일

사순 제4주일

2역대 36,14-16.19-23 에페 2,4-10 요한 3,14-21.

말씀 길라잡이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에페 2,10)

'나는 하느님의 작품이다!' 속으로 몇 번을 외쳐 봅니다. 속이 후련해져 옵니다. 스스로 애써 짊어지고 있던 어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바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뒤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미 주어졌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고백은 튼튼한 반석과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번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즐비합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한 번 속으로 외쳐 보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작품이다!' 아무 느낌이 없으시다면 용기 내어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리고 몇 번 더 하십시오.

하루에 세 번 먹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가톨릭 신자가 있었다. 그녀는 바로 며칠 전 TV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았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두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받은 약간의 용돈과 일주일치 용돈에서 절약한 것을 모아 둔 지갑을 가져와서 전부 쏟아 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아이들이 이 일을 얘기하자, 할머니께서 "너희도 풍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들을 도울 수 있니?"라고 묻자 막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할머니, 우리는 하루에 세 번 밥을 먹어요". 며칠 후 할머니께서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내 여분의 것이란다. 너희의 것에 보태어라. 실은 나도 하루에 세 번 밥을 먹는단다!"

– 도리아나 잠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하느님 손길』



당신이 행한 선행은 부질없거나 잊힌 듯해도,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 그것이 별 비처럼 당신 앞에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샤를 드 푸코

기호 식품 1가지를 절제하여 모은 돈을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는 곳에 보냅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2일

사순 제4주간 월요일

이사 65,17-21 요한 4,43-54.

말씀 길라잡이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요한 4,48)

우리는 갈릴래아 카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요한 2,11 참조).

오늘 갈릴래아 카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아이를 살리신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인 왕실 관리의 끈질긴 청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왕실 관리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과연 표징과 이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믿음을 낳습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간절한 청원이 늘 앞서고 있습니다. 청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청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비한 현상이 다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뀐다 하여도 뜬금없이 믿음이 그것도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건강한 믿음이 탄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한 사람만이 주어진 은총을 알아봅니다.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아침에 청한 사람만이 식사 때마다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희망의 핵심 역할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그 자체로는 사랑이 세 가지 대신덕 가운데 제일이라고 한다면,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이 있는 만큼 사랑은 성장한다. 희망이 꺼지면 사랑은 차가워진다. 희망 없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사랑 없는 세상이 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희망함에 따라 주신다. 이 사실은 대단한 구원의 진리이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

쉬는 교우를 위해 '토마스 성인의 성체 찬미가'를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3일

사순 제4주간 화요일

에제 47,1-9.12 요한 5,1-16.

말씀 길라잡이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요한 5,14)

에제키엘서에서 우리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한 사건이 오늘 벳자타 못 가에서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갖가지 아픈 병자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그는 치유의 샘, 생명의 샘이신 분에게 몸과 마음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 새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으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형으로, 동생으로, 친구로서 삶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미 시작했을 그 삶,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살아가는 삶을 자신도 시작합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건강해졌기 때문에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에 있어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죄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데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결핍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몸은 허약하나 마음은 건강한 때가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친절

친절은 교리나 학식이나 논증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교리와 학식과 논증에 친절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못 된다.

초기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으로 그는 대단히 박학한 철학자였다. 우리는 암브로시오 성인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되찾도록 했을 때, 대단히 훌륭한 철학적 논거를 가지고 그를 설득했을 것으로 상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노 성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의 삶을 바꾼 것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친절이었지 그의 학식이나 논증이 아니었다.

- F.W.페이버, 『느낌이 있는 이야기』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 셰익스피어

평소 나에게 소원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4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이사 49,8-15 요한 5,17-30.

말씀 길라잡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요한 5,19)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손에, 인간의 손길에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보살핌에 하느님께서 의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요한 5,3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의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중간한 의탁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 내어 맡김입니다. 아버지는 100이요 나는 0입니다. 영이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온갖 들짐승들 그리고 초목들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한숨짓고 푸념합니다. 불만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성인과 내면의 시간

시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머리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다. 머리의 시간이란 심리적인 시간, 지성의 시간이다. 그것은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 날과 시각으로 쪼개지고 계산하는 시간이다.

반면에 마음의 시간은 행복과 은총의 순간에 맛본 시간,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며, 자유롭게 우리의 계획으로부터 놓여나야만 살 수 있는 내면의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내면의 시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매우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된다. 성인들은 바로 이런 내면의 시간을 발견하여 그 시간과 일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여러분은 평화와 고요함을 바라는지요? 여러분의 뜻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모든 고뇌는 자신의 뜻을 지니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 끼아라 루빅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여 자선 바자회에 기증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5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

탈출 32,7-14　요한 5,31-47.

말씀 길라잡이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을 추구하라'(요한 5,44 참조)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으로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 섬기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탈출 32,8)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다양한 금송아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 자체를 가지고 우리끼리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졌기에 더욱 근사하고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의 특징은 늘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확인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느님과 상관없이 그분의 업적을 말하고, 하느님에게 받는 영광이 아니면서도 우리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뒷골을 오싹하게 하고 아찔하게 합니다. 자칫 우리의 행복이 그런 영광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에 결핍을 느끼고 불행해하고 있다면 그 또한 신기루입니다. 우리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기를 그치고, 오로지 하느님에게 받는 영광만을 추구합시다.

브라질의 헬더 카마라 대주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깊이 지니고 있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내 형제를 체포했다고 들었소."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경찰은 깊이 사과했다.

"대주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대주교님의 형제인 줄 몰랐습니다. 오셔서 그를 데려가십시오". 대주교가 그 사람을 데리러 경찰서에 가자,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주교님, 그 사람의 성이 대주교님의 성과 다른데요?" 그러면 대주교는 가난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제이자 자매라고 대답했다.

– 티모시 래드클리프,『새롭게 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족이 탄생했고 거기에서 아무도 소외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피, 곧 십자가의 피를 공유하고 있다. / 티모시 래드클리프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 15분 동안 영적 독서를 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6일

사순 제4주간 금요일

지혜 2,1ㄱ.12-22　요한 7,1-2.10.25-30.

말씀 길라잡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요한 7,25)

예루살렘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속삭임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지혜 2,16-17).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그대로 죽음의 올가미로 변하여 옥죄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던지는 도전을 그리고 악인들이 작성한 시험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 나가십니다. 당신의 죽음이 가져올 큰 소문들까지 개의치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답안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답안으로 채점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선교사도 많은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시험들입니다. 대부분 물질적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시험에 들곤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이용당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오늘도 주어진 문제에 답을 써야 합니다. 뒷날의 소문들까지 살펴보고 그 영향과 결과까지 다 헤아리기에는 머리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숙제를 풀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의 아둔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오늘

고대 '사막의 교부들'은 쓸쓸하고 희망이 없을 때 마음을 달래 주는 한 단어를 일종의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곤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나 '하느님' 또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 말은 바로 '오늘'이었다. 그 말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했다.

-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완덕의 계단에는 한 계단, 곧 오늘로 가는 한 계단밖에 없다. / 자크 필립

오후 3시에 마르코 복음서 15장(수난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7일

사순 제4주간 토요일

예레 11,18-20 요한 7,40-53.

말씀 길라잡이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요한 7,43)

이 논란은 정녕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세상 끝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밖에도 많은 논쟁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념에 대한 담론들,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 사이의 이견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난민 문제, 성차별, 인종 차별 문제, 빈부 격차 등등.

교회도 이 모든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려 주는 북극성처럼 세상 안의 논쟁들 사이에서 자신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사의 선포와 삶을 통하여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물음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어떤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이전에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희미해졌던 자기 내면의 물음에 직면하게 해 줍니다.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신의 성공과 부와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대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평범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자렛 예수님의 특별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저 그런'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그저 학생일 뿐이다.','나는 그저 엄마일 뿐이다.','나는 그저 회사원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대부분을 누구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저 목수로 지내셨다. 존.P.마이어는 그분을 '더할 수 없이 평범한 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시간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예수님이 나자렛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필요로 하신 도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 제임스 마틴,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 1』



소인은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관심이 있다. / E.허버트

집 안의 모든 성상과 성물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8일

사순 제5주일

예레 31,31-34 히브 5,7-9 요한 12,20-33.

말씀 길라잡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요한 12,28)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산란한 그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사 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만을 청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섬길 다른 묘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히브 5,8). 고난을 겪으시면서 보여 주신 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계약의 법입니다.

언제 어떤 처지에서든 아버지의 뜻을, 그 이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모든 고민의 귀결점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새 계약의 텃밭이 됩니다. 오늘 이 텃밭에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씨앗들이 날아와 떨어집니다. 이제 어떤 싹이 올라와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소록도에서 40년 동안 한센인 환자들을 돌보았던 큰 할매와 작은 할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죽어서도 소록도에 묻히고 싶다'던 바람과는 달리, 나이가 들자 소록도에 부담을 줄 것을 염려하여 한 장의 편지만 남긴 채 2005년 11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2016년 4월, 두 할매 가운데 큰 할매 마리안느가 국립소록도 병원의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답할 말이 없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환자들이랑 같이 살면서 소록도 아주 좋았고, 간호사로서 병원 일 기쁘게 했고, 우리 진짜 행복했어요.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걱정도 하지 않았어.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그냥, 밝은 줄, 생각하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하느님의 부름이에요".

- 성기영,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 땅에 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단순한 일이다. 거저 주는 법과 거저 받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 자크 필립

아픈 이웃을 방문하여 기도와 필요한 도움을 살핍니다. 실천 한가지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2사무 7,4-5ㄴ.12-14ㄱ.16 로마4,13.16-18.22 마태 1,16.18-21.24ㄱ.

말씀 길라잡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요셉’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로마 4,18).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조차도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은 그의 믿음 안에서만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셉 성인이 바랐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한껏 들어 올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할 구원자를 낳을 성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선하고 평범했던 사람 요셉이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커다란 간극은 그분의 믿음으로만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고 느낄수록 그 간극은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에 상응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희망의 삶을 살아간 성인을 오늘 특별히 기억합니다. 믿음과 희망의 사람으로!

신스틸러, 요셉 성인

요셉은 ‘하느님을 돕다’, 곧 ‘돕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한평생을 성실하게 돕는 이의 삶을 사셨다. 누구도 신경 써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을 숨기고 죽이면서 사람들이 아닌 하느님 앞에 진정한 신스틸러(장면을 훔치는 사람: 조연이지만 빛나는 연기로 주연보다 오히려 돋보일 때 쓰는 말)의 삶을 사셨던 요셉 성인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진정한 모범이시다.



우리는 성공하라는 소명이 아니라 신실하라는 소명을 받는다. / 마더 테레사 성녀

실천 한가지

예비 신자 1명을 인도하고 세례 때까지 계속 기도로 함께합니다.

3월 20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

민수 21,4-9 요한 8,21-30.

말씀 길라잡이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민수 21,9)

뱀에 대한 공포에 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다만 보아도 치유가 일어나는 구리 뱀은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복음이었을까요! 실감 나는 복음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이 사순 시기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 진정 살아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복음이 어느 날 생생하게 들려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들어 올린 뒤에야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에 물려 죽을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 주었던 구리 뱀처럼, 자기 죄 속에서 죽을 처지에 있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뱀에 물렸습니까? 뱀이 어디서 왔느냐고, 왜 이곳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뱀을 쳐다보며 백날 헤매도 답답한 처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뱀을 향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관이요, 악기요, 소리굽쇠다. 모든 영성 생활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느님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움직이시지 않는 한, 그 어떤 좋은 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첫째 움직임을 보완하는 둘째 움직임일 따름이다.

- 리처드 로어, 『벌거벗은 지금』



기도는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느님 말씀에 공명하는 것이다. / 리처드 로어

박해받는 교회를 기억하며 고통의 신비 5단을 바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1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다니 3,14-20.91-92.95 요한 8,31-42.

말씀 길라잡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요한 8,34)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어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타오르는 불가마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얽히고설킨 죄의 불가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죄악의 처참함은 그 연쇄 작용에 있습니다. 소년원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본인은 물론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등등 그에게 나쁜 영향을 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죄악의 실타래는 꼬이고 꼬여서 제대로 풀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버스 안에서 그 아이에게 소리 지른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고, 나에게 혼나고 집에 가던 성난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가마 속에서 누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싶지 않습니다. 죄의 작용과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작용은 용광로처럼 우리의 선한 의지를 불태우고 증발시켜 버립니다.

이 죄의 연쇄 작용이 멈추는 곳,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못은 움직이는 것을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손은 공격에 대해서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멈춤입니다.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던 죄의 연쇄 작용이 십자가상의 주님 앞에 가서 멈추어집니다. 죄의 상황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연쇄작용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십계명은 일련의 금지 명령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그 자비를 전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기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나'의 사막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대화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들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사랑은 '나'였던 인생의 주어를 '우리'로 바꿔 준다.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나'로부터 해방되어 자립을 이루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 기시미 이치로

숨은 선행 1가지를 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2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

창세 17,3-9 요한 8,51-59.

말씀 길라잡이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요한 8,55)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원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인 '안드'입니다. 한국말로 '친구야!'라고 부르려면 '안다!'가 됩니다. 두 나라말이 재미있게 그 의미가 통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알아야 되니까요. 상대를 깊이 알수록 변하지 않는 우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몽골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절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의 친분이 두텁게 쌓여야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따를 수 있을 테니까요! 몽골인의 문화는 새로운 소식에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말에서도 그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서닝 새항 요웨?" 말 그대로 옮기면 "신기하고 좋은 게 뭐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소유자가 멀리에서 온 사람일수록 새로운 소식이 더 많을 테니 더욱 환영을 받습니다.

선교사와의 초기 만남이 비교적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소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히려면, 소식의 원출처인 예수님께 대한 앎과 체험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선포자인 선교사 자신에게도 동일한 숙제가 매일 주어집니다.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노력 말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을 그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4월이 되자 돼지 마을에 불면증이 찾아왔다. 운 좋게 살아남은 돼지들도 5월이 오면 어김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돼지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 불안에 떠는 돼지 마을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독 한 돼지만은 달랐다. 녀석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엄마가 흔드는 요람 속처럼 즐겁게 잠을 청했다.
'소중한 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 박민정, 『화요일의 동물원』



오늘이 일 년 가운데 가장 좋은 하루이며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 현재만이 온전히 내 것이기 때문이다. / 레프 톨스토이

재능 기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예레 20,10-13 요한 10,31-42.

말씀 길라잡이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요한 10,33)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이 유다인들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결국 유다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진리를 말씀하실 것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몽골인의 전통적인 집이라 할 수 있는 '게르'에서 살고, 소똥을 때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주변 몽골 친구들이 놀라는 눈빛을 합니다. 저의 생활 방식이 외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와 자녀도 없다고 하면 놀라움은 더욱 커지고, 그것이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저는 사람이 맞는데 말입니다.

유다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그들의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 속에 사람을, 사람 속에 하느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깨어짐의 영성

하루는 연로한 어느 수사가 밭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갓 수도원에 들어와 수련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노수사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게,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주게나!" 젊은이가 물을 부으니 물은 양옆으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노 수사는 망치로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잘게 부서진 흙을 모아 놓고 다시 한번 물을 청했습니다. 젊은이가 부은 물은 이내 흙 속으로 촉촉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노 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걸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깨어져야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물을 받을 수 있지. 그래야 구원의 씨앗에서 꽃도 피어나고 결실도 거둘 수 있다네. 젊은이! 우리 수도자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른다네!"

-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겸손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임스 마틴

오후 3시에 루카 복음서 23장(수난 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4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에제 37,21ㄴ-28 요한 11,45-56.

말씀 길라잡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요한 11,50)

지난여름 내내 초원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살고 있는 초원과 유목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따금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계곡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였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소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는 것은 시원하고 통쾌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는 적당한 시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페트병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마음먹었던 한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일체의 분심도 없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하나를 주울 때마다 저의 지난 잘못 하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수난의 길! 기꺼이 걸어가신 길! 그분의 한 걸음,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길임을 묵상합니다.

용기

"용기는 그 일이 얼마나 하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죽어도 하고 싶으면 죽을 만큼의 용기가 나는 것 아닐까요?"

33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날 때, 42살, 구호 개발 NGO 월드 비전에 들어가 대형 재난의 최전선에 뛰어들 때, 48살, 세계 시민 학교를 시작할 때, 55살,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그때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다. 전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어서 더욱 그랬다.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 일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다.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것을 꾹 참고 한 발짝 더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안 나세요? 진심으로 원한다면, 눈 딱 감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나가 보세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 한비야, 『좋은 생각』



우리는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보리라고 기대하는 것, 보고자 열망하는 것을 본다.
/ 리처드 로어

구역의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신앙적 어려움에 도움을 줍니다. 실천 한가지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J.갈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될 때라도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이 없어질 때라도
용기를 내어 사랑하십시오.

지치고 피곤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한 발자국만 더 내딛고
사랑하십시오.

이기심의 껍질 속에 숨어 버리고 싶을 때
그 유혹을 깨고 나와
사랑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라도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뛰어넘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 지쳤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십시오.



3월 2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 복음 마르 11,1-10 또는 요한 12,12-16.
이사 50,4-7 필리 2,6-11 마르 14,1—15,47 또는 15,1-39.

말씀 길라잡이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이사 50,6)

방금 옆집 고등학교 학생이 제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때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인데, 거짓말이 보태어지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숨을 쉬다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권했습니다. "당장 모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른들에게 용서를 청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이후에 저를 친구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순간만 용케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체험이 앞으로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겠구나!

학생과 대화를 하는 동안 하느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종종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담담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하느님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실까요?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진리를 따르고자 모욕과 수모를 감내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제 성주간입니다. 내 주변의 가식들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싶습니다. 모욕과 부끄러움 앞에서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는 차돌 같은 얼굴을 지니고 싶습니다.

우물과 마음의 깊이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 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 정용철,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 잠언 4,23

미사 후 성당 자리 정리를 돕습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6일

성주간 월요일

이사 42,1-7 요한 12,1-11.

말씀 길라잡이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요한 12,6)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십니다. 라자로의 누이동생 마르타와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거운 여정에서 반가운 이들, 당신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는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마르타는 오늘도 시중을 들고 있고, 마리아는 비싼 나르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 정성에서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은 못마땅해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였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선교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모양새나 생색 내는 정도의 관심은 아니었을까? 내 마음이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행한 자선 행위는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 세상의 병폐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냥 망각해 버렸다". 유대감은 그런 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유대감을 목표로 삼으면 다른 중요한 것들은 자리를 찾아간다. 유대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 그레고리 보일, 『덜 소중한 삶은 없다』



사랑의 실천이 끝판에 가서 고통으로 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 마더 테레사 성녀

구역의 쉬는 교우들에게 부활 축하 카드를 보냅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7일

성주간 화요일

이사 49,1-6　요한 13,21ㄴ-33.36-38.

말씀 길라잡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요한 13,21)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다나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이 배반의 사태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배반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여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실로 배반의 역사에서 절정을 차지합니다. 주님의 종이 뭇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지고자 깊고 짙은 어두움의 배경을 이루는 배반입니다.

선교사인 제 안에도 유다의 생각이 그리고 베드로의 비겁함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얼마나 자주 애처롭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나 그 시선의 끝은 늘 희망으로 차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항상 더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가끔 몽골 형제자매를 보면서 특히 그들의 신앙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심하게 흔들거리는 것을 볼 때 저도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보다 더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쉽게 지친다는 것이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부 시절 한 부인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있었다.

베르고글리오 : 아니, 지은 죄도 없으신데 왜….

부인 :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죠.

베르고글리오 : 아니, 부인. 혹시 그레고리안 신학을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지혜는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해요. 맞습니다! 하느님은 지치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인 : 그런데 신부님,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베르고글리오 : 문제는 우리 인간이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치지 않고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용서 구하는 일을 힘들어 하고 지레 포기해 버리죠.

– 로사리오 카렐로,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건강으로, 모든 기형을 아름다움으로, 모든 창피함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쉬지 못한다. / 벨든 레인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오늘의 복음을 크게 봉독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8일

성주간 수요일

이사 50,4-9ㄴ　마태 26,14-25.

말씀 길라잡이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마태 26,18)

예수님과 제자들의 파스카 만찬 자리를 언제든 준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성 안의 '아무개씨'가 눈길을 끕니다. 제자의 배반 사건의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그래서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는 무명의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일까 몹시 궁금합니다.

요즘도 제 은행 계좌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몇 분이 늘 등장합니다. 예전에 모금하러 다닐 때 제 계좌를 알게 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분들의 성함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 있는 '아무개씨'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무개씨'들이 계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는 그분을 배반하기에 이르는데, '아무개씨'는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스승을 후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개씨'의 특징은 비록 이름을 불러 주고 알아보아 주지 않는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 아닐는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식당을 꾸미느라 몇 날 며칠을 수고하셨던 대전 신학교의 아무개 수녀님들과 아무개 언니들이 떠오릅니다. 피곤했을 터인데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도성 안의 '아무개씨'가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약함

넘어질 때 사람들은 "어이쿠" 또는 "아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구호를 청하는 호소이면서 일종의 즉석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도는 약할 때 하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의 약함들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일는지 모릅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시니까요.

- 윤해영, 『희망의 속삭임』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죄도 다 아십니다. 삶의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

감실에 홀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변에 홀로 사는 이들을 방문합니다. 실천 한가지

3월 29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탈출 12,1-8.11-14　1코린 11,23-26　요한 13,1-15.

말씀 길라잡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운데 영적으로 발씻김 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식에 필요한 제반 물품이 준비되지 않아서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대처했던 것인데 그날의 감동이 오늘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발을 씻겨 주신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의 발을, 꼭 씻어 주고 싶은 이의 발을 닦아 주는 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우리 일행은 먹먹한 상태에서 눈물에 젖은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각자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기로 생각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미움과 분노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씻기어 나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교구 사제들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과 갈등을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족 공동체, 수도 공동체들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의 발을 씻어 줍시다. 베드로와 실랑이를 하시면서까지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의 발도 제외하지 않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그분의 손길과 마음에 우리의 발을 맡겨 드립시다. 그래야 우리도 형제의 발을 진심으로 씻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서 오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기꺼이 거부당하고 상처받고 상실을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당신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적 선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돌포 케사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사랑을 시작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 머무르시기 시작했습니다.
/ 아우구스티노 성인

실천 한가지 가족과 함께 주님 만찬 미사에 참석한 후 집에서 발씻김 예식을 합니다.

3월 30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이사 52,13—53,12　히브 4,14-16; 5,7-9　요한 18,1—19,42.

말씀 길라잡이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성모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특별히 묵상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상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완성된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겪으신 삶의 시작과 마침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함께하신 분, 바로 성모님과 함께 골고타 언덕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합니다. 시메온이 예언했던 날카로운 칼이 오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셨던 성모님은 그때의 믿음을 저 내면에서부터 끌어내고자 안간힘을 쓰십니다.

성모님은 고통으로 혼절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드님께서 겪으신 생의 절정과 발맞추어 당신의 영적 여정도 절정에 가까워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간직해 온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을 향하고 있었음을 깨달으십니다. 성모님은 터져 나가는 당신 품으로 다시금 십자가상의 사건을 고이 간직하시려고 두 팔을 벌리십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여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넌 예수님의 고통을 배우고 있는 거란다

1957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물한 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사흘 동안 열이 끓어오르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통증과 싸우던 호르헤 베르고글리오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헐떡거리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물었다. "어머니,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폐렴을 심하게 앓았던 그는 극심한 고통 끝에 우측 폐상엽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한 치료제를 보내 주셨다. 그가 어렸을 때 첫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수녀님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호르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넌 예수님의 고통을 배우고 있는 거란다".

- 로사리오 카렐로, 『안녕하세요, 교황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고결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실천 한가지 가족과 함께 십자가 경배 예식에 참석하며 요한 복음서 18~19장을 묵상합니다.

3월 31일

파스카 성야

창세 1,1—2,2 창세 22,1-18 탈출 14,15—15,1ㄱ 이사 54,5-14 이사 55,1-11
바룩 3,9-15.32—4,4 에제 36,16-17ㄱ.18-28 로마 6,3-11 마르 16,1-7.

말씀 길라잡이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마르 16,4)

살아 있는 이들과 죽은 이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얼마나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될지 상상도 못하고 대신 무덤을 막고 있던 무겁고 큰 돌을 어찌해야 되는가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보다 우리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 돌덩어리는 무엇인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여정에 깊이 동참하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큰 돌, 그 무거운 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이 무거운 돌을 도대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누가 있어 도와주기나 할까요?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부활의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앞에 부활의 강력한 초대는 우리의 염려를 이미 치워 놓았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이미 죽지 않았더냐고 활짝 열린 무덤 입구가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부활을 입읍시다.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로마 6,11).

파스카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충분치 않다. 어떤 의미에서 파스카의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스카는 역사적 의미, 우의적 의미, 윤리적 의미, 신비적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파스카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날 때 있었다. 우의적으로는 세례 때 교회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지나갈 때 파스카가 있다. 윤리적으로는 영혼이 고백과 통회를 거쳐 악에서 덕으로 지나갈 때 파스카가 있다. 신비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비참함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지나갈 때, 그곳에 파스카가 있다.

–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파스카』



자기 얼굴을 완전히 돌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열성과 경탄, 환희와 기쁨, 찬미와 환호로 그분과 함께 파스카 곧 '건너가게' 된다. / 보나벤투라 성인

파스카 성야 미사에 참석합니다. 실천 한가지

4월 1일

주님 부활 대축일

사도 10,34ㄱ.37ㄴ-43 콜로 3,1-4 또는 1코린 5,6ㄴ-8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또는 루카 24,13-35.

말씀 길라잡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콜로 3,3)

무덤이 열리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전갈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정신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두 제자는 아마포와 주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만 확인합니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이 사실임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정말로 비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이제 확인된 빈 무덤에서 출발하여 부활의 현실을 향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다인을 무서워하며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오십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열렸지만, 제자들의 문은 오히려 부활의 신비 앞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닫힌 문을 개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온전히 죽었을 때 우리의 생명은 빈 무덤처럼, 마치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기라도 하듯이 감추어지게 되는 상태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부활의 빛 안에서 그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성대한 세례 축일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날에 인간은 홍해를 통과하고, 자신의 옛 실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분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홀로 죽은 밀알은 홀로 머물지 않고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홀로 머물지 않으시고, 인류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어 새롭고 범우주적인 인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 요셉 라칭거,『믿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기쁨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울림의 메아리다. / 마미언



2018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발 행 일 2018년 1월 1일
발 행 인 김준철 신부
편 집 인 장형심 수녀
편　　집 문혜영, 박소라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02)2268-7103
팩　　스 02)2268-7104
E-mail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pmsk1004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선교 사명



해외 선교 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 02) 460-7609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회원 가입 문의 02.2268.7103 **E-mail** pmsk@pmsk.net **www.pmsk.net**


PMSK